

고베 트릭아트 불가사의한 영사관

고베 트릭아트 불가사의한 영사관은 착각의 예술이 주제인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상설 전시 공간입니다. 2층 건물의 이 서양식 주택은 20세기 초반에 힐튼씨와 그 가족을 위해 건축된 저택이지만 제2세계대전 후에는 파나마 영사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외관은 흰 회반죽 벽에 짙은 녹색의 목재 장식이 특징입니다. 1층의 커다란 부채꼴 모양의 창과 창과 어울리는 창 상부의 세세한 부분, 또한 넓은 현관 입구와 개방적인 포치로 고급스러움이 담긴 품격이 느껴집니다. 이 집에는 전통적인 툃마루와 창이 있는 일본식 날개부가 있고 별채에는 종업원용 건물도 있습니다.

내부에는 몰입형 전시 공간이 1층과 2층에 걸쳐 설치되어 있고, ‘고베 오리지널 시리즈’, ‘어드벤처 월드’, ‘착각의 세계’, ‘두뇌 트레이닝’, ‘결작’, ‘미로’의 6개 섹션이 연결되듯 전시되어 있습니다. 큰 트롱프뢰유(눈속임 그림)에는 방문자가 실제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거대한 고베 비프 스테이크에 눕거나 서프 보드를 타거나, 상어에게 쫓기거나 거대한 흡혈귀가 뒤집은 와인잔 안에 갇힌 것처럼 보입니다. 각 전시는 재미있는 트릭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조언도 합니다. 또한 크기, 원근법, 반사, 중력 등을 구사하여 착시 효과가 생긴 방 사이즈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몇 가지 착시 퍼즐에도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고베 트릭아트 불가사의한 영사관은 유머 감각이 뛰어난 크리에이터가 멋진 디자인으로 큐레이션하여 어린이 동반 가족, 커플, 친구 모임 등 다양한 연령대의 방문자들이 신나게 즐기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은 우로코 그룹이 운영하고 있습니다.